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봉산탈춤>의 문화 교육 연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 문 주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봉산탈춤>의 문화 교육 연구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조 문 주

조문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30일



주 심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쾌 덕 (인)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대상 3

II. <봉산탈춤>의 문화적 함의와

문화 교육 7

1. 문화적 함의 7

가. 민중적 비판성과 진정성 9

나. 언어유희와 풍자 13

다. 놀이 문화 15

2.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 16

3. 문학 문화의 실천 22

4. <봉산탈춤>의 문화 교육 방법 25

가. 놀이 문화의 향유 25

나. 문학 창작자 양성 26

다. 전통적 가치의 내면화	27
----------------------	----

Ⅲ.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법 29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 문화	29
2. 현행 <봉산탈춤> 지도 방법의 문제점	30
3. 학습 목표의 설정	32
4. 지도상의 유의점	33
5.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모형	34
가. 1차시 교수-학습 모형	34
나. 2차시 교수-학습 모형	37
6. 평가방법	39
가. 평가기준	39
나. 평가상의 유의점	40
다. 평가 문항지	40

Ⅵ. 결 론 42

<부 록>

학습지 46

참고문헌 47



A Study on Teaching Culture of <Bongsan Mask Play>

Mun Ju Jo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Literature has been created with reflecting culture. Culture means expressed form that a way of life, thinking and emotion etc. of people who live the age.

These cultures have not realized by discontinuation, but have developed by connecting age and age unceasingly. Literature becomes an important medium that can grasp culture as a part of culture.

The 7th curriculum present that literature reflect culture. By the way, these literature culture's viewpoint is overlooked at present education site. It is simply focus to analyze literary work. To sublate current literature education method, I present that can train active literature consumer who understand cultural tradition by classical literature and contribute to current cultural development. I set up <Bongsan Mask Play>as research object among great many classic work. <Bongsan Mask Play>is on the stage from the occurrence time to the present time which reflect current culture and past culture when the work was created. Because Mask dance perform by the mass of people, it reflects their culture. Also Mask dance have a distinctive feature that everyone

could be a main body of creation without classify fictionist and consumer. Therefore, this paper's purpose are understand at that time by Mask dance and can afford to create new Mask dance which reflect present culture. We examined the cultural implication that was represented in <Bongsan Mask Play>. <Bongsan Mask Play>well appear a sense of criticism of the masses who are main body of enjoyment to the control class. Also, through the language amusement and satire,<Bong-san Mask Play>scorn the control class at that time secretly. It can be examine public's play culture because <Bongsan Mask Play> gave a play Dan-o Festival.

We have examined culture education method by these cultural implication that are represented <Bongsan Mask Play>. First, I present the method that study to familiarize with playing culture as learners see directly <Bongsan Mask Play>and participate in the performance. Second, We can train literature fictionist through the activity that create oneself by using form of Mask dance. Third, Learners can internal the traditional value that immanent in <Bongsan Mask Play>by discussion activity.

With these viewpoint, I wish to present new Teaching and Learning map way. For these, I have examined the respect of literature culture that presented by 7th curriculum and the problem of education method in <Bongsan Mask Play>. With these, I present a new learning purpose having a viewpoint of literature culture. I presented teaching-studying guidance plan which was based on culture education method in <Bongsan Mask Play>and new studying target. At this time, teacher present a valuation basis so that every learners can take part in class actively and execute mutual estimation for each learners.

We need to recognize the purpose of culture education is not a large scale, but raise the subjective man who understand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culture education and raise the learners who are able to success&develop creatively these as an active fictionist. Also, We do not overlook the fact that

learners could be an actively subject and learners enjoy the literary work more spontaneously and more understand easily culture through the literary work are most importan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인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이렇게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모여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생각, 사상, 감정 등이 표현된 형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고 유형의 것일 수도 있다. 문자 생활 이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왔고, 문자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좀 더 활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문화를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는 단절되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며 이어져 내려왔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 향유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변화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어교육과 문화를 연관지어 살펴보는 관점이 널리 퍼졌다. 문학은 문화의 한 양상으로 문학교육은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성장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¹⁾ 그러

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81쪽 재인용.

나 현장에서는 문학 작품을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어 작품의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작품을 해석하다 보니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의미해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을 통해 문화를 이해한다’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 교육을 통해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 교육에 있어 학습자를 단순한 수용자로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독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인 수용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문학을 통해 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된 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알고, 그것을 계승해 나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새로운 문화 전통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가 문학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이 아닌 문학을 재창작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학교육의 범위가 현대문학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은 현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문화에만 한정되어 현재 문화의 전통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문학교육을 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면 무엇보다 문화적 전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로 고전 문학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문화적 전통을 제대로 학습할 수 없게 된다.

고대가요부터 고소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전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어왔고,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그것이 창조되고 향유될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며 그 모습을 유지해 왔다. 문학교육을 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전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 문화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했고 그것이 현재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전만큼 훌륭한 자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전 문학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언어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조상의 지혜·정서·가치관 등을 앎으로써 그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한국인다운 정서를 기를 수 있게 된다. 굳이 애국심에 호소하듯 역사적·민족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역설하지 않더라도 작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적 향유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 문학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이 가능한 까닭과 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수용자로서의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대상

고전문학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심화과목인 문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다. 11학년부터 적용되는 심화과목인 문학은 현재 18종으로 나뉘어져 있어 작품의 범위가 넓고, 고등학교부터는 입시체제의 교육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상 본 논고에서 제시하는 학습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많은 고전 중에서도 현재까지 연희되고 있는 탈춤을 통해 문화 교육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대시대의 탈춤의 모습은 제의적 목적으로 향유된 것이나 조선후기 탈춤이 융성했던 시기를 살펴본다면 탈춤은 지배 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민중의 문학 장르이다. 이러한 탈춤

을 통해 당대의 민중의 삶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전범(典範)이 된다. 또한 탈춤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탈춤은 그것을 수용하는 계층들의 문화를 담고 현재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탈춤은 문학의 창작 주체자와 수용자가 함께 그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의 수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당시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탈춤은 창작의 주체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그것이 공연될 때마다 내용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재창작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수용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10학년 국어(상) 3단원에 있는 <봉산탈춤>을 선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탈춤은 비교적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 향유 계층의 범위가 넓고, 특별한 창작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어 탈춤을 통해 당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현대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내용의 탈춤을 재창작 해봄으로써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어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 좋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학 교육이 삶의 교육이고 문학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총체적 바탕과 근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통하여 한국인의 말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고전문학 역시 문화를 반영하며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전문학 속에는 조상들의 정서, 생활습관, 가치관, 삶의 태도 등이 담겨 있어 과거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중에서도 <봉산탈춤>은 한국의 독자적인 연극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구의 전통희곡들과는 달리 과거 희곡의 형태가 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으로나마 전승되어 채록된 <봉산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 등과 더불어 희곡교육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봉산탈춤>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탈춤을 통해 당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탈춤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봉산탈춤>에는 각기 다른 계층들을 풍자의 대상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노장, 양반, 영감은 조선 시대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노장을 통해 당대의 종교 문화를 살펴 볼 수 있고, 양반을 통해 당대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구조를 알 수 있으며, 영감을 통해 당대의 처첩간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탈춤은 그것이 향유되던 시기의 다양한 문화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춤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당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봉산탈춤>에 나타나는 풍자와 해학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춤의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수용 주체자들이 직접 탈춤이 연희되는 공간에서 연희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 결국 수용자들은 단순한 감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인물들을 비판하거나 동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다. 이러한 직접적 참여로 인해 수용자들은 작품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탈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롭게 재창작해볼 수 있다. 탈춤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장르이다. 지배계층이 향유했던 문학 작품들은 압

2) 홍영진, <봉산탈춤 지도 방법 연구 :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6-29쪽.

축적이고 상징적인 고도의 문학적 기교가 필요했다.

그러나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피지배계층이 문학의 창작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피지배계층이 창작주체가 되면서 지배계층이 문학 형식인 단형의 형식들이 점차 산문화, 장형화되어 갔다.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장르가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피지배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탈춤 역시 형식의 얽매임이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탈춤의 현장성과 무대의 개방성으로 인해 관객 누구나가 작품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관객의 반응에 따라 내용의 전개 변화가 가능해지면서 탈춤은 창작주체가 곧 수용주체라는 특이한 공식의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일방적 관계에 놓여 있던 작가와 학습자라는 기존의 문학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을 창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에 탈춤의 장르는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서양연극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서양연극의 형식과 다른 탈춤을 학습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특질과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교섭양상을 이해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³⁾ 따라서 한국문학의 특질을 잘 나타내는 탈춤을 통해 서양 연극의 형식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문학과 한국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314-315쪽.

Ⅱ. <봉산탈춤>의 문화적 함의와 문화 교육

1. 문화적 함의

문화는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인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 오랜 세월 나타난 문화 중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질을 우리는 ‘전통 문화’라고 부른다. 전통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외래문화의 접촉이 잦았다. 지형적으로 중국, 일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두 나라와 수많은 접촉과 분쟁을 치러야 했다. 이 속에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민족에 맞게 변화시켜서 사용했다.

둘째, 한풀이 문화가 많았다. 우리 민족은 안팎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한을 풀어나는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시집살이요>나 가면극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려는 우리 민족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계층을 초월하는 문화를 꽃피우려 하였다. 무속 신앙이나 판소리의 경우 양반과 민중의 구분이 없이 모든 계층이 향유하였다.

넷째, 내면적인 멋을 추구하는 문화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문화는 자연과 더불어

4)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2006, 역락, 32-35쪽.

은근하고 소박한 맛을 품기는 특징이 있다. 소탈하면서도 생동한 언어와 꾸밈없는 춤사위, 거침없는 해학적 말투 등이 그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민중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문화였다. 민중들이 일하면서 놀이와 의식을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여섯째, 남을 배려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문화였다. 대표적으로 놀이 문화들 수 있는데 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 모여 음주 가무를 하면서 화합과 단결의 일체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의 기능과 일치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 이외에 심화 기능으로써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들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녹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전 문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의 기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은 어느 한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형되어 왔다. 결국 전통은 과거의 조상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승·창조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 전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 창작자로서의 학습자를 길러 내기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봉산탈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먼저 <봉산탈춤>에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민중적 비판성과 진정성

<봉산탈춤>은 도시탈춤으로 신흥 상인 계층의 세계관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탈춤은 말뚝이나 취발이와 같은 천민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노장이나 양반과 같은 지배계층 사이의 대결을 통해서 몰락해 가는 지배 계층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지배계층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

양반과 노장에 대한 풍자는 농촌 탈춤에서 이때나 초랭이가 행했던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랄하고 공격적이다. 결국 양반이나 노장과 같은 지배 계층이 말뚝이와 취발이 등과 같은 피지배계층에게 조롱당하거나 패배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새로 도래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존속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장 : (부채를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한다.)

취발이 : 이이 이것 야단났구나. (놀라서 나무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 오오 이제야 알겠다. 자세히 보니까 네 몸에다 칠포(漆布) 장삼(長衫)을 떨쳐 입었으며 육환장(六環杖)을 눌러 짚고 백팔염주(百八念珠)를 목에 걸고 붉은 가사를 메고 사선선(四仙扇)을 손에 들고 송낙을 눌러 썼으니 중일시가 분명하구나. 중이면 절간에서 불도나 힘쓸 일이지 중의 행세로 속가에 내려와서 이쁜 아씨를 다려다 놓고 저와 같이 노니 네놈의 행세는 잘 안됐다.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내르거나 해보자. ...

-<봉산탈춤>, 제 3과장 사당춤 中 제 3경 취발이춤-

말뚝이 : (가운데쯤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

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봉산탈춤>, 제 6과장 양반춤-

<봉산탈춤>이 이렇게 지배계층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가능한 이유는 탈이 갖는 은폐성과 상징성과 함께 서민의식이 성장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현존하는 우리의 탈춤은 민중들이 즐기고 애착을 가지는 연극으로 농악이나 판소리 등에 비해 보다 강한 민중의식을 표현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기존사회와 제도를 비판하는데 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7과장 미알과장에서는 미알과 영감과 덜머리집의 삼각관계를 그려 일부처첩의 가정 비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봉산탈춤>은 다른 풍자문학과는 달리 향유 주체자인 민중 자신의 삶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배계층인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삶 역시 소재로 삼아 그들의 삶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동일⁵⁾은 덜머리집이 승리를 하는 것은 낡은 것의 퇴조와 새로운 것의 도래, 겨울과 봄, 죽음과 생명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할미는 이미 생산을 멈춘 물러가는 세대를 의미하며 그래서 겨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덜머리집은 잉태가 가능한 젊은 세대, 다산의 기운이 충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5) 최웅 외, 『한국의 전통극과 현대극』, 북스힐, 2003, 14쪽

이것은 농민사회에 기반을 둔 탈춤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봉산탈춤>은 농민의 풍요에 대한 욕망을 덜머리집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 사회에서는 처첩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소설에서는 갈등이 끝나고 처첩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대표적인 가정 소설 <사씨남정기>의 경우 처첩간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새로운 첩을 얻어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는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처첩제도의 부정적인 요인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봉산탈춤>을 극의 시작에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작품의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미알과장은 조선후기 민중들의 의식변화로 인해 처첩간의 갈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영감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축첩제도가 잘못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알 : 너는 저런 년에게 빠져서 이같이 나를 팔세하니 이제는 나도 너 같은 놈하고 살기가 싫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번 세간이니 세간이나 똑같이 노나가지고 헤어지자. 어서 노나내라.

영감 : 그래라 노느자. 물이 충충 수답이며 사례 찬 받은 나 가지고, 제비같은 여종이며 날매 같은 남종일랑 새끼 꺾서 나 가지고, 황소 암소 새끼 나 가지고, 곡식 안 되는 노리마당 모래밭대기 너 가지고 숫쥐, 암쥐, 생쥐까지 너 가지고, 네년의 새끼 너 다 가져라.

미알 : 아이고, 아이고 설음이야. 나무라도 짝이 있고 나는 새와 기는 짐승 모두 다 짝이 있건만 우리 부부 헤어지자니 이게 모두 웬말이야. 헤어질라면 헤어지자. (춤을 추면서)저어절절 시구 지화자 절시구...

-<봉산탈춤>, 제 7과장 미알과장-

영감에게 새로운 여자인 털머리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알은 영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 영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면서 헤어지는 것에 찬성을 한다. 이에 미알은 영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어지자며 춤을 춘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여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봉산탈춤> 이전의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인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임이 떠나가도 뒤에서 눈물을 짓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규원가>의 경우 여색을 가까이 하는 남편을 홀로 방에서 기다리며 눈물짓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날 뿐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알은 영감보다 먼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영감의 태도를 보고도 그를 붙잡지 않는다. 이러한 미알의 태도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대적 의식의 성장이 조선 후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성 의식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알은 영감에게 당당하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현대적 여성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여성 의식의 성장은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만무방>에서 응철의 아내는 남편이 노름에 절어 살자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다.

같은 시기에 나온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아직까지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해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만무방>의 응철의 아내는 다분히 적극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철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봉산탈춤> 속의 미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한 시대에만 나타나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언어유희와 풍자

탈춤을 연희했던 계층은 평민이다. 따라서 탈춤 속에는 평민들의 언어가 잘 드러나 있다.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 말뚝이가 양반과 함께 시를 지으면서 사용한 한문투, 사투리, 음담패설, 말장난을 통한 언어유희 등이 탈춤 구석구석에 표현되고 있다.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 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놔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팔자(八字)로 오련각(五樑閣)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

이 장면은 말뚝이가 양반의 새처를 정하는 장면으로 말뚝이가 양반의 가옥 구조를 한자어를 구사하며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반집의 화려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반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낸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小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

오신단 말이요.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

위의 장면은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양반을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쓴다고 풀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양반과 발음이 같은 언어유희의 기법으로 말뚝이는 언어유희의 기법을 통해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양반에 대한 항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피지배계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택하기 보다는 언어유희라는 방법을 통해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춤에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들은 양반과 노장 등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피지배계층의 내면에 있는 울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언어유희 등의 간접적 방법을 사용해 그들의 울분을 웃음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이것은 슬픔을 슬픔으로 풀지 않고 웃음으로 풀려고 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학은 언어를 통해 형상화 되고 이러한 언어적 관습은 곧 문화가 된다. 이러한 민중들의 언어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언어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를 통해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다. 놀이 문화

<봉산탈춤>은 매년 5월 단오 날 밤에 세시풍속 놀이의 일환으로 연행되었다.⁶⁾ 세시풍속 놀이로 행해졌던 우리나라 전통 연희들은 그 기능적 의미를 가진다. <봉산탈춤> 역시 단오절의 놀이로 연행되었다는 점 역시 제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탈놀이를 통해 표출됨으로써 민중들은 활력을 보충할 수 있다. 탈춤은 연희자들만 즐기는 공연예술이 아니라 관중들이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연예술이다. 서양에서 말하는 연극은 배우들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고 관객은 다만 바라보는 입장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탈춤은 개방된 공간과 현장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관객의 개입이 언제든지 가능한 개방적인 연극이다. 따라서 공연되는 내내 관객이 극에 개입해 이야기의 전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서양의 문화에 비해 우리의 문화에는 춤과 음악이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춤과 음악이 늘 함께 했다. 탈춤은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춤과 음악을 연극적 요소에 도입한 대표적인 예이다. 탈춤에서 춤의 기능은 두 계층의 화합을 의미한다. 또 관객과 공연자 모두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춤을 춤으로써 한바탕 즐겁게 논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중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한이나 슬픔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웃고, 춤을 추면서 화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탈춤이 민중들이 향유했던 대표적 문학 갈래이고 놀이문화라는 점에서

6) 박전열, 『봉산탈춤』, 화산문화, 2001, 20쪽.

<봉산탈춤>을 통해 우리의 놀이문화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을 창작해봄으로써 현대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

문학은 언어문화에 속한다. 문학에 대한 많은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한 인생의 표현”이다.⁷⁾ 즉, 문학은 언어로써 형상화된 언어예술이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언어로 형상화된 문학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감정이 담겨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의 본질을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로 보고 있다.⁸⁾

‘언어예술’이란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심미적 행위라는 점을 의미하고, ‘국어 문화’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보편 가치와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이 가능한 까닭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학은 개인의 정신적인 산물이지만, 그것은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 문

7) 임경순,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2003, 147쪽.

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2, 301쪽.

학이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향유해야 한다.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는 창작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을 언어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문학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분석론적 관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같은 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화론적 관점을 배제하고서는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상의 <오감도>를 해석할 때에 모더니즘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모른 채 작품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반영론적 관점이 배제될 수 없는 까닭은 문학이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어떤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된다.⁹⁾ 또한 문학이 언어의 상징물이라는 점과 문화 역시 하나의 상징체라는 점에서 문학과 문화는 모습이 비슷하다. 기어츠¹⁰⁾는 “문화란 것은 상징으로 구체화되고,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의미의 유형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형태의 개념체계”라고 했다.

결국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현상을 형상화하면 그것은 그 집단의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게 된다. 하나의 작품이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그 작품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오랫동안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의 작품들이 모여 그 시대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문학은 한 개인이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잘 보

9)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7쪽.

10)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6쪽 재인용.

여주는 문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개별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적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로서의 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 중의 하나로서 문학 자체의 예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문학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최근의 문학 연구는 문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문학 연구에서는 문학의 예술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텍스트의 미적 성취, 완성도에 주목했던 것에 반해, 문화 연구에 기댄 문학 연구는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역사적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용자가 문학을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서 유리된 것으로서 바라보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러 체험들을 문학을 통해 비춰보게 만듦으로써 문학을 보다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따라서 문학 문화를 설정하는 까닭은 문학이 국어 문화의 일부라는 점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문학 교육의 문화 교육적 성격과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최근의 논의는 문화적 문식성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 지식으로 널리 인식된다.¹¹⁾ 문화는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다. 민족 공동체의 의식이 반영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소멸하고 만다. 따라서 개개인의 문화적 문식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을 키워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참여하여 지금의 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 창작자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1)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171쪽.

권오경은 한국문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¹²⁾

한국문화교육 목적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작용하며, 그 문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모국 문화와 목표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며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함.	



한국문화 교육 목표		
이해 · 체험 단계	-한국인의 행위를 통한 한국 문화 속의 한국인의 의식과 사회제도를 이해한다.	지적 영역
	-한국의 전통, 현대의 성취문화를 시대적, 영역별로 이해한다.	
	-한국어문화의 범주와 특성을 이해한다.	
	-한국인의 ‘관계 형성’에 관한 정서를 이해하고 실제 체험한다.	정의적 영역
적용 · 심화 단계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의 동이점(同異點)을 비교하고 생활에 활용한다.	지적 영역
	-한국문화의 가치를 알고 문화 재창조를 위한 방법 학습을 익히고 자기화한다.	가치 영역
	-한국문화학습을 통하여 한국 및 한국인과의 친밀도를 강화한다.	태도
	-문화 교육을 통하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영역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¹³⁾ 문학능력이란 문학 지식, 문학적 사고력, 문학 소통 능력, 문학에 대한 가치와 태도, 문학 경험 등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 능력은 다소 좁은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능력보다는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능력¹⁴⁾이란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주체적으로 세계에 개입하

12)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어문총론 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13) 교육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321쪽.

14) 정현선, 『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역락, 2004, 55쪽.

는 소통과 실천의 과정에서 생산한 것으로 이해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주체적으로 문화적 텍스트를 생산하여 세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문화적 능력을 기르게 되면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문학을 감상하고 주체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수용자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의 성과는 무엇인가. 김대행은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학교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⁵⁾

문학 교육은 문화로서의 문학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다. 또한 문학의 향유에 문화의 재창조와 생산이 함께 포함된다.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의 목적은 과거와 소통하고 과거의 삶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 그것이 향유되던 시대의 문화적 요인을 찾아보고 그것이 생명력을 갖게 된 까닭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이 전통문화라고 불리는 우리의 고전들의 생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학 교육은 고전을 통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지금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문학 향유자이면서 창작자를 길러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구 문물을 별다른 비판적 인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국 문화는 차별성, 변별성,

15)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81-286쪽.

고유성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춤을 통한 문화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문학이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은 문화 교육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학을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향유하고 그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보다 바람직한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의 방안이 적극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문화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문화의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문학은 언어문화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에 사용된 언어는 그 작품의 창작 주체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문학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주로 문학의 향유주체는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민중으로 대표되는 피지배계층의 문화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는 문화 향유의 주체를 경기체가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과 고려속요로 대표되는 피지배계층을 통해 고려시대 문화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한림별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배계층의 문화는 그들의 학문적 지식과 풍류였다. 그러나 고려 속요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피지배계층의 문화는 이별, 사랑 등을 주로 표현하고 있어서 지배계층의 문화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화를 창작하는 주체와 향유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창작자와 향유자의 상호 교섭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중문화의 경우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자인 동시에 창작주체가 되기도 한다.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은 이제 일상생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지금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것이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어느 하나의 계층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 다른 문화, 다른 사회와 교섭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낸다. 문화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소유물이라면 그것은 그 민족 집단의 문화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탈춤은 창작자와 향유자의 뚜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탈춤이 향유되던 당시의 문화적 모습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갈래의 작품들은 창작자와 향유자의 구분이 뚜렷한 반면 탈춤은 연희되는 공간에서 내용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과 악공, 공연자, 관객에 의해 새로운 창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탈춤을 향유하는 계층들의 문화를 무엇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춤을 통해 문화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3. 문학 문화의 실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문화적 현상으로 정의내리고 문학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소통으로서 문학 활동을 이해하고 여기서 나아가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수용자로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자들은 문학이 언어로 표현된 언어문화임을 인지하고, 문학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문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학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인물상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작가 개인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인물 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 작품이 쓰인 당시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단순히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물들과 대화를 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속 인물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인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악인과 선인이 없듯이 이러한 인물유형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보다 능동적인 태도로 파악하고,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인물유형을 파악한다면 작가의 의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보다 폭넓은 감상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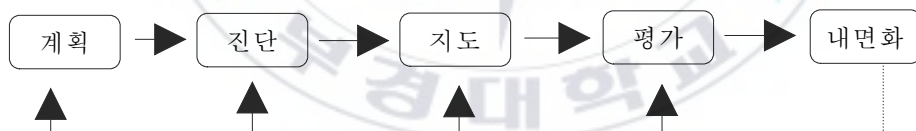
둘째, 독자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파악하며 읽지 않는다. 작품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상상하고 사건 전개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읽는다. 독서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독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단편화되고 구조화된 작품 분석 내용을 전달하여 학습자의 상상력을 막고 있다.

이러한 교수방안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능동적인 수용자의 양성을 위해 ‘창작’의 과정을 교육과정에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창작’의 과정이 될 수 있는 독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문학 작품에 드러난 주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학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가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것은 문화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주제를 실천하는 과정은 문화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의사소통행위의 하나로서 작품을 놓고 작가와 독자, 독자와 다른 독자들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가치관을 독자는 내면화할 수 있다.

실제로 문학의 교육방법의 마지막에는 내면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문학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¹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교육과정에서는 내면화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궁극적 목적은 정서적 감화이다.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독자가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문학 교육이다.

16)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276쪽.

내면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할놀이, 토의수업 등의 방안이 있다. 이 중에서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다음 장에서 제시해 보았다. 이것은 심화된 학습목표로서 학습 목표가 기본과 심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4. <봉산탈춤>의 문화 교육 방법

문학은 그 자체가 언어 상징물인 동시에 가치관, 생활양식, 삶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했다. 그렇다면 개별의 문학 작품을 통해 그 민족의 문화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문화의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놀이 문화의 향유

탈춤은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탈춤의 공연 예술적 성격으로 인해 탈춤은 조선후기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탈춤의 공연 자체가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놀이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을 향유해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적 놀이 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텔레비전, 영화, 컴퓨터 등의 매체발달로 인해 밖에서 즐기는 놀

이보다는 집안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에만 빠져있다. 결국 이렇게 밖에서 하는 공연 문화는 점점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콘서트 등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연자 혼자 이끌어 가는 것으로 탈춤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봉산탈춤>의 학습을 통해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공연에 참가해봄으로써 학습자 역시 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 평가의 방법을 활용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미술이나 음악 교과의 경우에는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다녀온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직접 현장을 다녀오게 한다.

그러나 국어교과의 경우에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 주로 할 뿐 이러한 방법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 교사는 이러한 공연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놀이 문화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현재의 놀이문화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은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나. 문학 창작자 양성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단순한 수용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수용자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는 어떤 특정 계층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에라야 비로소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용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춤의 경우에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를 능동적 수용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지금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내용의 탈춤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국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학습자들이 문화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능동적인 수용자로서의 학습자가 될 수 있다.

능동적인 수용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문학을 통해 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된 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알고, 그것을 계승해 나갈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여 새로운 문화 전통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가 문학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이 아닌 재창작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전통 문화의 내면화

문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이러한 문화를 반영한 문학 작품 역시 어느 시대에나 나타났다. 고전문학에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들이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독자는 문화적 전통을 알 수 있다. 고전 문학에는 전통문화라고 불리는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작품 속에 내재된 전통문화를 문학 교육을

통해서 현재의 학습자들은 내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습득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의 문화 발전에 이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어느 한 시기의 특징적인 요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대와 소통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흔히 ‘고루한 것’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저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전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3단원에서는 ‘우리 고전의 맛과 멋’이라고 하여 ‘설, 향가, 설화, 판소리계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실어 놓고 있다. 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가 ‘고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만을 보더라도 고전 문학을 통해 문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 문학을 통해 조상들의 가치관을 알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봄으로써 문화적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Ⅲ.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방법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 문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¹⁷⁾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의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른 국어 영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국어 영역은 크게 본질, 실제, 태도의 범주로 나누는 반면 문학은 실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구분 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학의 수용까지만 다루고 있을 뿐 창작 영역과 문학 문화의 영역은 다소 등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입시체제의 현실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문학과 문화의 영역은 포괄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을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수용,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 영역은 문학이 포괄적인 국어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용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학 활동이 인간의 삶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문학도 하나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화 활동으로서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1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313쪽.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현행 <bonsan talchum> 지도 방법의 문제점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속극의 목표를 구비문학 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⁸⁾

첫째, 민속극 교육을 통해 민속극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민속극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둘째, 민속극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재창조를 할 수 있다. 이는 논리적 추리력, 상상력을 신장 시킬 수 있으며 사고력도 함양 할 수 있다.

셋째, 경험의 확대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속극 교육은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이 과거의 삶과 연계됨을 이해한다.

넷째, 인간의 본성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긍정한다. 민속극 교육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회복해 물질 만능 풍조와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민속극 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 교육의

1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민속극 교육의 목표와 실제로 교과서에 구성된 <봉산탈춤>의 학습 목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봉산탈춤>의 학습 목표는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¹⁹⁾이다. 표현론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는 간과한 채 단순히 작품을 읽고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는가를 알아보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위에서는 장면의 개념을 알고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장 단위가 아닌 담화 단위에서 장면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실제 언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자의 국어 지식이 향상됨은 물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계획은 다음과 같다.²⁰⁾

(2) 봉산탈춤	이 해	· 담화에서 장면의 개념 알기 ·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 알기 - 지시표현 - 심리적 태도 표현 - 높임 표현
	활 동	· 제시된 탈을 보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장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내용 다시 읽어 보기 · 장면에 따라 담화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여 작품 내용 다시 표현하기

1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002, 157쪽.

2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002, 140쪽.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작품에 제시된 인물 간의 관계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장면을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장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방식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였다. 또한 언어 외적 표현 방식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작품을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민속극의 특징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민속극을 읽기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이것은 민속극을 교육과정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근거가 된다. 단순한 읽기의 수단이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모습을 간직하지 않고 있고 현재의 연극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민속극을 굳이 교과서에 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순히 다양한 읽기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민속극보다 오히려 읽기 편한 현대 소설이 더욱더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속극을 단순히 표현론적 관점에서만 살피는 현재의 학습목표를 지양하고 문화론적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능동적인 창작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봉산탈춤>에 나타나 있는 장면을 통해 당대의 문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학습 목표의 설정

- 1) <봉산탈춤>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봉산탈춤>을 읽고 향유되던 당시의 문화적 요소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찾는 활동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적 요소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났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상과 <봉산탈춤>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문화를 무조건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2)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을 공연할 수 있다.

전통의 문화를 이해했다면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탈춤을 창작할 수 있다. 또한 탈춤의 성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의 문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물을 공연해 볼 수 있다.

3) 현재의 문화를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문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의해본다. 그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문화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봉산탈춤>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찾을 때에 교사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반영된 문화적 요

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탈춤 공연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몇몇의 학습자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이 전통 문화를 알고 현대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모형(총 2차시)

가. 1차시 교수-학습 모형

<봉산탈춤>의 1차시 학습에서는 기본 학습목표의 달성을 학습목표로 삼았다. <봉산탈춤>의 장면을 통해 그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이 때, 교사는 조선후기의 사회상에 대한 배경지식을 학습자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당시의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에 학습자가 직접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꾸미는 것이 좋다.

조선 후기의 문화를 살펴 본 후 현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대중가요나 영화, 광고 등의 매체를 보여준 후 학습자들이 현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탈춤 대본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1차시의 모든 수업과정은 모둠학습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탈춤에 문화적

요소가 어떤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한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금의 문화를 반영한 탈춤을 만들어보도록 함으로써 탈춤의 특성을 알도록 한다. 또한 지금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봄으로써 지금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단 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본시 제재	(2) 봉산탈춤	차시	1/2
학습 목표	● 봉산탈춤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을 공연할 수 있다.			수업 모형	모둠 활동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 점
		교사	학생		
도입 (5')	동기 유발	○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연하는 가면극을 보고 그 속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왕의 남자>를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부분에 나타난 사회적 요소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VOD 자료
	학습목 표제시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인지할 수 있다.			ppt
전개 (40')	작품에 반영된 문화	○ <봉산탈춤>을 공연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이 때 한 장면 장면씩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구성하여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VOD 자료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 점
		교사	학생	
	작품에 반영된 문화	○작품에 반영된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습자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만 한다. ○학습자들이 찾은 탈춤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발표시킨다. ○학생들의 발표내용을 듣고 정리한다. ○광고, 가요, 영화 등을 통해 현대의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 대본을 만들 수 있다.	○탈춤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발표한다. ○다른 모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학습지에 정리한다. ○매체를 통해 현대 문화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학습지 VOD 영상
정리 (5')	학습 내용 정리	○본시학습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과제 제시	○탈춤 공연을 준비해 올 수 있다.		
	다음 차시 예고	○탈춤 공연을 실제로 해보고 그 속에 반영된 현대의 문화를 살펴 보고 현대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나. 2차시 교수-학습 모형

2차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본 탈춤 대본을 바탕으로 실제로 공연을 해 본다. 공연 시간은 짧게 가지는 것이 좋고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학습자들이 관중이 되어 탈춤의 내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만들었던 대본대로 탈춤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탈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난 다음 학습자들은 현대 문화의 특징을 말한 후 앞으로 우리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 주제는 ‘현대 문화의 특징과 방향’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모두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토의 활동을 통해 현대 문화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앞으로 문화를 이끌어갈 주체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단 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본시제제	(2) 봉산탈춤	차시	2/2
학습 목표	●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탈춤을 공연할 수 있다. ● 현재의 문화를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수업 모형	모둠 활동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전시 학습 확인	○ <봉산탈춤>에 반영된 문화를 확인한다.	○ <봉산탈춤>에 반영된 문화를 말할 수 있다.	과위 포인트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인지할 수 있다.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40')	모듬 발표	○모듬에서 준비해온 탈춤을 공연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탈춤 공연에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와 적극적으로 관람하는가를 관찰하면서 평가한다. 학습자들에게 평가 문항지를 나눠주며 평가 시 유의점에 대해 인지시킨다. ○현대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이때, 학습자가 문화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적절히 화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탈춤을 실제로 공연하고 관람할 수 있다. ○탈춤 속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다른 모듬의 공연을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평가지
정리 (5')	학습내용 정리	○탈춤에 나타난 현대 문화의 요소를 정리한다.	○현대 문화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다음 차시 예고			

6. 평가방법

가. 평가 기준

인지적 영역보다 학습자들이 실제로 탈춤을 공연하고 스스로 문화적 요소를 찾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 ◎ 탈춤을 보고 당시의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
- ◎ 현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탈춤을 공연할 수 있는가?
- ◎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위의 기준들은 학습 목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에 우선권을 두었다. 작품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탈춤을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현대의 문화를 이해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활용할 뿐 어느 작품이 뛰어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이번 학습의 목표가 모든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문화 주체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을 뿐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평가 기준을 달성할 때 비로소 문화 교육의 목적인

창작자로서의 수용자 양성, 전통적 문화의 이해,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평가 상의 유의점

<봉산탈춤>의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를 평가하고,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평가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상호 평가하고 교사의 평가와 취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기준은 교사가 제시한 평가 목표를 제대로 이루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미리 평가 기준을 알려주어 학습자들이 평가 기준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평가시 지나치게 학습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모든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심 유발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한다.

다. 평가 문항지

국어과	평가 문항지		학번:
	단원 : 3.(2) 봉산탈춤		이름:
대상	평가내용	평 가	
1모둠	1.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		
	2. 현대의 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가?	(1점) (2점) (3점) (4점) (5점)	
	3. 탈춤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		
2모둠	1.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		
	2. 현대의 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가?	(1점) (2점) (3점) (4점) (5점)	
	3. 탈춤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		

◎ 평가 시 유의점 ◎

평가 문항 1번을 바탕으로 하여 2번을 평가 한다. 문화적 요소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한 과장 안에서 현재의 문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적당한 점수를 주도록 하고, 평균을 내어 성적에 반영한다. 평가 문항 3번의 경우에는 탈춤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IV. 결 론

문학이 문화를 반영하면서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통해 문학 문화를 이해한다는 과정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는 문학 작품을 단순히 해석하는 분석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었다. 현장의 이러한 문학 교육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 문학을 통해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고를 시작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학이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까닭을 살펴보고 많은 문학 작품 가운데 탈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봉산탈춤>을 통해 문화 교육이 가능한 까닭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전통 문화의 특질을 파악하고 <봉산탈춤>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질을 찾아봤다. <봉산탈춤>의 주체자가 피지배계층이라는 점에서 피지배계층의 저항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민중의 언어적 특징 또한 잘 나타나고 있었다. 문학이 언어를 통해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 속에 나타난 언어는 그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봉산탈춤>에 나타난 민중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봉산탈춤>이 단옷날 연희된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피지배계층의 놀이 문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 교육의 방법 중에 놀이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있었는데 <봉산탈춤>은 이러한 문화 교육의 방법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양식이다. <봉산탈춤>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놀이 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놀이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문학과 문화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학과 문화는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의 목표가 창조적인 수용자의 양성과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탈춤에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탈춤의 문화 주체자와 탈춤 속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문화 향유 주체에 따라 문학의 내용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봉산탈춤>을 이해할 때 <봉산탈춤>의 향유 주체자가 민중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해한다.

또한 문학을 통해 문학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문학 문화는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언어문화로서 문학 창작 주체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나타난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봉산탈춤>을 통한 문화 교육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봉산탈춤>이 놀이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이문화를 직접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수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춤의 주체자들이 곧 창작자인 동시에 수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학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산탈춤>이 고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봉산탈춤>이 문화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나아가 전통 문화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창조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산탈춤>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실제로 <봉산탈춤>을 통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산탈춤>의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였다.

그런 다음 <봉산탈춤>을 통해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학습목표는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봉산탈춤>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실제로 창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현대의 문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현대의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러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학습자들이 보다 바람직한 문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 목표에 태도영역을 설정하였다.

평가에서도 학습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리 해보았다. 평가 시에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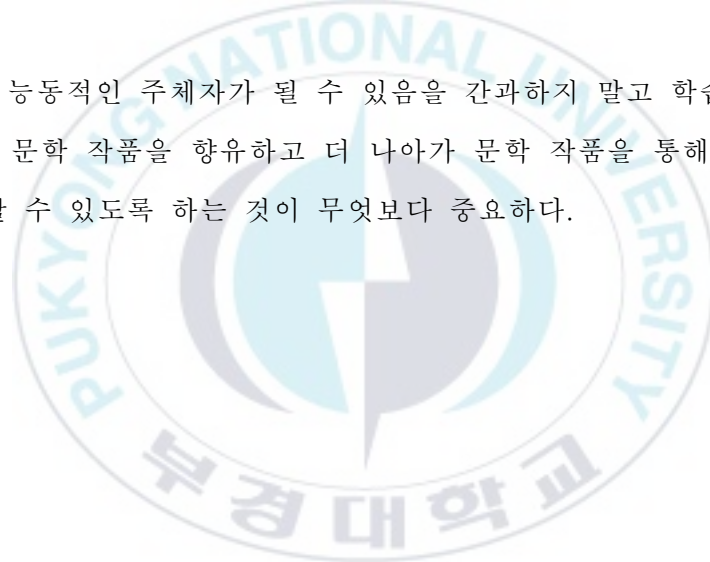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하고, 학습자들의 상호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문학이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문학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봉산탈춤>에 한정하여 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학습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 생활 속에 문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전통과 현대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또 문화 교육의 목적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을 통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창작 주체자로서의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은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내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입시위주의 수업 내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습자가 능동적인 주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향유하고 더 나아가 문학 작품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지]

국어과	단원 학습지		학번:
	단원 : 3.(2) 봉산탈춤		이름:
토의주제	현대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대의 문화 실태			
현대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 정리 (모둠별 발표 내용 정리할 것)			
나의 생각			
소감문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생활국어 교사용 지도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002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창원, <국어문화창조의 이념은 정당한가>, 『국어교육과 문화론』, 한국
초등국어교육학회, 2002
- 명인서, 『탈춤, 동양의 전통극, 서양의 실험극』, 연극과 인간, 2002
- 민병욱, <교육 연극의 기본 원리>,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민병욱·
심상교편, 연극과 인간, 2000
- 박인기,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 박전열, 『봉산탈춤』, 화산문화, 2001
- 박진태, 『한국고전희곡의 역사』, 민속원, 2001
- 서연호, 『한국 가면극 연구』, 월인, 2002
- 서연호 외,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 손태도, <조선후기 탈춤의 주체>, 『조선후기 민속 문화의 주체』, 실천민
속학회, 집문당, 2005
- 심상교, <교육연극과 국어교육의 상관성>,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000

심상교 외, <한국 전통연희극의 개념과 의의에 관한 일고찰>, 『한국 공연 예술의 새로운 미래』, 연극과 인간, 2006

안기수 외, 『한국문화의 이해』, 보고사, 1999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종대, 『열린연극, 서사극과 봉산탈춤』,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91

이윤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6

인권환,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모색』, 태학사, 2003

임경순,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2003

임재해, <민속문화의 전승주체와 민중의 문화 창조력>, 『조선후기 민속문화의 주체』, 실천민속학회, 집문당, 2005

장한기, 『한국 연극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전경옥,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98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역락, 2004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탈춤의 역사와 신명놀이』, 지식산업사, 2006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一潮閣, 1999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 제1권』,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최웅 외, 『한국의 전통극과 현대극』, 북스힐, 2003

한옥근, 『한국 고전극 연구』, 국학자료원, 1996

한창훈, <언어와 예술 자료로서의 고전문학과 교육-주로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 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논문>

-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 어문총론 45호, 한국 문학언어학회, 2006
- 김덕수, <문화 산업으로서의 문학산업>,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김재환, <학습자 중심의 향가 교육 모형의 개발과 적용:<서동요>감상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윤우, <문학 연구와 문학 교육: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문화론의 몇 가지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19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
- 신태철, <조선조 후기 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전개 양상 연구 : 연암소설과 관소리계 소설 중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우한용, <문학교육의 현실대응력에 대한 고찰-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교육적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77회, 한국어교육학회, 1992
- 이두현, <봉산탈춤>, 진단학보 29호, 진단학회, 1966
-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이은성, <문화론적인 시각에서 본 문화 교육의 방향-대중문학의 교육적 수용 가능성>, 청람어문교육 2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1
- 이종대, <열린연극, 서사극과 봉산탈춤>,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91
- 임세경, <봉산탈춤의 전승 양상>, 남도민속연구 12집, 남도민속학회, 2006
- 임혜경, <가면극에 나타난 해학의 상징적 조형화 연구 :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가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조은정,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골계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조혜림, <봉산탈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골계적 기반과 서사적 전개 양상>,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홍연진, <봉산탈춤지도 방법 연구 :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